

닛신보 - 인도네시아 합판회사의 셔츠 원단 판매량

월 80만 야드로 증가

닛신보는 1995년에 조업을 시작한 방직 합판(合辦)회사인 “니카와 · 텍스타일”과 1998년에 조업을 시작한 제직 · 염색가공 합판회사인 “기스텍스 · 닛신보(G&N)”의 생산품에서 닛신보가 직접 판매하는 규모를 증가시키려는 방침을 세웠다. 이 두 합판회사는 닛신보의 연결자회사(連結子會社)로서 니카와의 주식 중 73%, G&N의 주식 중 60%를 닛신보가 소유하고 있으며, 니카와가 원단을 생산하고 G&N이 가공하고 있다. 닛신보는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다른 공장제품도 가공하여 월간 70 80만 야드를 판매하고 있다.

그 동안 닛신보는 2001년 말 시점에서 이들 자회사의 드레스 · 셔츠 감 및 스쿨(school) · 셔츠 감 등의 셔츠 감을 월 30만 야드 판매하였는데, 현재는 이들 두 자회사의 생산량 중 60 70%를 닛신보가 판매하면서 판매량을 월 50만 야드로 늘리고 있는데, 3년 후에는 월간 80만 야드로 영업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, 앞으로는 G&N 가공능력의 40%를 닛신보가 판매하게 될 것이다.

닛신보가 이들 두 합판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셔츠 감은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혼방한 직물로서 폴리에스테르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있고, 면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있다. 2001년 여름부터는 0.8데니어의 극세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50/50으로 혼방한 50수 단사로 제직한 셔츠 감도 생산하고 있는데, 현재의 규모는 월간 10만 야드 정도이다.

앞으로 이들 두 자회사의 기술이나 품질을 향상시켜 보다 고급스러운 도비(dobby) 직물이나 면/마 혼방 직물도 생산하게 될 것이며, 기능성 가공도

방오, 소취, UV 컷 등 뿐만 아니라 닛신보 직영 공장이 전담하고 있는 액체 암모니아처리 이외의 일본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공을 G&N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.